

#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권오형<sup>1</sup>, 문재우<sup>2\*</sup>

<sup>1</sup>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sup>2</sup>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on dail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h-Hyoung Kweon<sup>1</sup>, Jae-Woo Moon<sup>2\*</sup>

<sup>1</sup>Lecture, Division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2차 조사 대상자 4,400명중 1,483명을 대상으로 SPSS 21.0에 의한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일상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했다. 원활한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하여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일상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장애인,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 and self-efficac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SPSS 21.0 were applied to 1,483 out of 4,400 of Pena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The study show that the interpersonal rel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influenced positive effect to life satisfaction and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conclusion that daily life satisfaction can be enhanc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fficacy, this study mad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fficacy.

**Key Words** : Daily lif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 Self-efficacy, people with disability, Convergence.

### 1. 서론

스스로 자신의 처지나 생활에 대해 만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 행복도 지수는 높지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생활 만족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 즉, 생활 만족도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

에 객관적인 지표로부터 영향을 받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 그래서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입장을 중시하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되어지기도 한다[2]. 한국은 2017년 기준 GDP가 세계에서 12위를 기록 했지만, 생활 만족도는 OECD가 발표한 38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3, 4]. 우리나라의 객관적 지표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e Woo(moon1229@hansei.ac.kr)

Received October 16,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15,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상의 삶의 질이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경제 지표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다[5].

사회화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교류과정 및 적응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는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7]. 또한 의사소통 및 이해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았다[8]. 즉,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대인관계가 긍정적일 때 스스로 사회에서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신념을 갖는다.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한 장애인 임금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 임금 근로자보다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고,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또한 직장 내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직무스트레스는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한 물리적 능력의 한계로부터 오는 것 보다 크다[10].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대인관계가 원만 할 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향상된다[7, 8, 11].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으며, 가족 간 갈등적인 대인관계에 의해 저하된 자아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13].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소득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1, 14], 취업이나 고용상태[15], 사회적 차별[16, 17], 사회적지지[18, 19], 직무만족[20], 생활환경[21], 및 우울[22] 등의 외부환경요인을 다루는 연구와,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 참여[23, 24], 자아존중감[19] 등의 개인적 내부요인을 다루는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장애인의 특성상 환경요인으로부터 장애인의 삶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장애인이 스스로 환경요인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자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내부요인 변수들은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에 상당히 의존되어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자기효능감을 높이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부 요인 변수 중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으며, 장애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변수인 대인관계와 자아효능감에 주목하여 생활만족도를 바라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특성상 비장애인인과 비교하여 수동적이거나 비주도적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이 스스로 노력하

거나 활동한 결과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얻은 생활만족의 결과보다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중요시되는 의사소통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보다 더 배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아효능감은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경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장애인이 스스로 소속된 사회에서 다양한 대인관계와 폭넓은 사회활동을 한다면 장애인은 스스로 소속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도 증진될 것이라 추론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방안을 연구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연구문제 4]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17년 실시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Pena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의 2차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패널조사 자료의 표본은 한국의 15~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1단계 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이 추출 되었다. 이를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층화 추출 하였다. 전체 표본 수는 4,400명이며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가 표본의 대상이 되었다[25]. 전체 패널자료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인관계,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에 응답한 1,483명이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1.0에 의한 기술통계, 상관분석

이 활용되었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회기분석과 Sobel Test가 사용되었다.

## 2.2 변수 별 척도

### 2.2.1 대인관계

대인관계 척도는 Schlein, Guerney & Stover(1971)의 척도가 수정, 보완되어 장애인고용패널에 활용되었다 [26]. 본 패널에는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9개 문항)와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7개 문항)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와 관련된 7개 문항만 사용되었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말을 건다', 3) '나는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 준다', 등 7개 문항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가끔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866이다.

### 2.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Schwarzer(1992)에 의해 개발된 척도가 활용되었다[27].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 2)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3)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등 10개 문항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Cronbach's alpha 값은 .929이다.

### 2.2.3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는 9개의 개별 문항에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을 물어 얻은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들과의 관계', 2) '친구들과의 관계', 3) '살고 있는 곳', 등 9개 문항이다.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는 높다. Cronbach's alpha 값은 .767이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여성의 비율은 30.5%로 69.5%를 차지한 남성 에 비해 매우 낮다. 결혼 및 동거의 비율은 97.9%로 미혼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독신비율 2.1%에 비해 매우 높다.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85.5%로 14.5%의 경증장애인 비율 보다 6배 정도에 달했다. 고졸학력의 비율은 46.3%로 중졸이하의 비율 21.8% 및 대졸이상의 비율 32.9%보다 높았다. 40대미만의 인구 비율 22.8%, 40대 36.8%, 50대 25.3% 및 60대는 15.1%이며, 40대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하향하는 인구 구성을 이루었다. 가구연간 소득은 3,500만 원 이상은 45%이며, 2,5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38.9%를 차지하여 소득이 높지 않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Group

variables	groups	N	%
gender	F	453	30.5
	M	1,030	69.5
marriage	single, others	31	2.1
	marriage .live together	1,452	97.9
disability	minor	215	14.5
	major	1,268	85.5
education	↓ middle school	324	21.8
	high school	686	46.3
	↑ university	473	31.9
age	15~39	338	22.8
	40~49	546	36.8
	50~59	375	25.3
	60~65	224	15.1
household annual income/(ten thousand)	↓ 2500	577	38.9
	2501~3500	239	16.1
	3501~5000	339	22.9
	5001~7500	218	14.7
	↑ 7500	110	7.4

Others of marriage is divorce, bereavement and separation.

### 3.2 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대인관계,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각각 2.963(SD=.480), 3.571(SD=.577) 및 2.923(SD=.493)으로 변수들의 중앙값 2.5 및 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의 왜도 -.074, 첨도 .246, 일상생활 만족도의 왜도 -.051, 첨도 .074 및 자기효능감의 왜도는 -.084, 첨도

.222로 변수 별 왜도는 1미만, 첨도는 7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가정 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 ess	Kurto sis
interpersonal relation	1,483	1.00	4.00	2.963	.480	-.074	.246
life satisfaction	1,483	1.13	5.00	3.571	.577	-.051	.074
self-efficacy	1,483	1.00	4.00	2.923	.493	-.084	.222

### 3.3 상관분석

각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는 생활만족도( $r=.240, p<.01$ ) 및 자기효능감( $r=.606, p<.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일상 생활만족도( $r=.3014, p<.01$ )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자기효능감 및 일상 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다. 변수별 단순상관관계가 'r=.800' 이상의 변수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variables	1	2	3
1	1		
2	.240**	1	
3	.606**	.314**	1

\*\*p <.01, 1=interpersonal relation, 2=life satisfaction, 3= self-efficacy

### 3.4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에 의한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28]. step 1에서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 $\beta=.606, t=29.315, p<.001$ )을, step 2에서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 $\beta=.240, t=9.501, p<.001$ )을 미쳤다. step 3에서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 $\beta=.267, t=8.632, p<.001$ )을 그리고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 $\beta=.078, t=2.513, p<.05$ )을 미쳤다. step 3에서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beta=.078, t=2.513, p<.05$ )은 step 2에서의 그 영향력( $\beta=.240, t=9.501, p<.001$ )보다 감소하여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지녔다. 따라서 [연구문제 1], [연구문제2], [연구문제 3] 및 [연구문제 4] 가 검증되었다.

step 1, step 2 및 step 3에서 모델의 유의 확률 값( $F=859.385, p<.001, F=90.274, p<.001, F=84.631, p<.001$ )과 각 단계별 설명력  $R^2$  값(.367, .057, .103)은 회귀분석 모델로 적합했다.

step 1, step 2 및 step 3에서 VIF 값(1.000, 1.000, 1.580)은 3.3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Durbin- Watson 값(1.847, 1.704, 1.780)은 모두 2.0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은 발생되지 않았다.

각 step 별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10.786 + .889 * 1, Y = 24.455 + .371 * 1 \text{ 및 } Y = 24.418 + .120 * 1 + .282 * 2 \text{ 였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Variables	$\beta$	t	F	$R^2$	adj $R^2$	VIF	Durbin- Watson
step 1. interpersonal relation→ self-efficacy	.606	29.315***	859.358***	.367	.367	1.000	1.847
step 2. interpersonal relation→ life satisfaction	.240	9.501***	90.274***	.057	.057	1.000	1.704
step 3. interpersonal rela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267 .078	8.632*** 2.513*	84.631***	.103 .103	.101 .101	1.580 1.580	1.780

\*p <.05, \*\*p <.01, \*\*\*p <.001

### 3.5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kinnon et al. (2002)에 의한 Sobel test 결과는 Table 5와 같다[29]. z 값이 8.211( $p<.001$ )로 유의성 기준 값  $z \geq \pm 1.96$ 을 충족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임이 Sobel test에서도 검증되었다.

Table 5. Sobel test

	Sobel test statistic	p
1→2→3	8.211	0.001

\*\*\*p <.001, 1=interpersonal relation  
2=self-efficacy, 3=life satisfaction

#### 4.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증진을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실험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경로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및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가 원만 할수록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 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양한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9],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또래관계가 원만한 청소년 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30] 및 대인관계가 원만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연구[12]와 그 맥을 같이한다. 장애인은 특성상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 해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이동의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또는 복지관별 소규모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다. 아울러 장애인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또는 다양한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활동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면 원활한 대인관계유지는 물론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했다. 이는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 되었다는 연구[13] 및 인간관계 유지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31]와 같은 결과이다.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활한 대인관계는 일상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 만족도가 보다 더 증진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나 복지기관 등에서 정책적으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단순한 대인관계 관련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운영을 한다면 일상생활 만족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활동 등에 참가를 하는 경우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에 함께 참가 한

다면 스스로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역사회나 복지기관 등에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확대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내부요인인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만을 일정 시점에 한정하여 다룬 횡단 연구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유형, 만성질환, 사회적 활동, 경제적 요인 및 가족관계 등 다양한 내외부요인을 다루지 못한 점과 일상생활 만족도 변수의 특성상 횡단연구에 의해 얻은 결과는 시간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스로 주체적 위치에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한 점과 특히 장애인 삶의 질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 REFERENCES

- [1] O. H. Cwon. (2015). The Influence of Disabled Paid Worker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es on Daily Life Satisfaction ; the Main Focus on Analyzing Mediation Effect of Self Esteem and Moderating Effect of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Disability & Employment*, 25(4), 297-319.
- [2] Diener, Ed, E. Sandvik, L. Seidlitz & M. Diener.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 and subjective well-b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3] S. H. Kim. (2018). *Gross domestic product 20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148100002.HTML>
- [4] OECD (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OECD.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 [5] H. Joon. (2015). Quality of Life in Korea and Its Social Determinants.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10(2),

- 67-95.
- [6] R. Montemayor. (1994). *The study of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t, in personal relationship during adolescent*, edited by R. Montemayor, G. Adam & T. Gulotta, CA: Sage.
- [7] S. J. Lee. (2008). The Relationship of Social Connectedness with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27(1), 67-87
- [8] H. S. Kang & K. H. Lim. (2013). The Influence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in Jeollanam-do.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1), 481-500.
- [9] D. M. Yeum, M. J. Kim & H. Y. Baek. (2013).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the social network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23(1), 303-325.
- [10] C. S. Lee & M. S. Kim. (2012). The study on the psychosocial variable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the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2(1), 29-54.
- [11]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entral*. New York: Freeman.
- [12] W. G. Jang, Y. S. Park & U. C. Kim. (2007). Human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ical analysis.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25(1), 1-21.
- [13] H. Y. Lee. (201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flict-Interpersonal Relati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Parents-in-Law Living Together with Daughter-in-Law. *The Societ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75, 457-484.
- [14] H. S. Kim & Y. S. Lee. (2014).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o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24(4), 146-171.
- [15] M. S. Jeon. (2018).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isabled's Quality of Life: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Disabled Peopl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 201-221.
- [16] H. E. Nam. (2015). A study on the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wareness of Social Discrimination on Quality of Life - Center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coping resources and stress-coping methods -. *Korea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 30, 117-143.
- [17] J. S. Lee. (2011).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elf stigma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1), 277-299.
- [18] H. K. Kim. (2010).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Prejudice Experienced by the Mentally Ill on Quality of their Life.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1(2), 63-84.
- [19] I. G. Jeong. (2015).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Cerebral Pals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esteem.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19(4), 61-81.
- [20] J. O. Sin. (2015). Multiple Mediator of Job Environment and Work Sustainability on the relation of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49, 202-226.
- [21] N. H. Park & M. S. Gu. (2016). The impact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living environment on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19, 79-115.
- [22] H. S. Kim & Y. S. Kim. (2009). The Effe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with Disability.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2, 183-215.
- [23] S. H. Kim, J. K. Park & E. R.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6(4), 173-195.
- [24] S. G. Song & H. Lee. (2014). The Leisure Participations and Leisur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Objective Frequency and Perceived Frequency. *Tourism & Leisure Research*, 26(6), 261-280.
- [25] J. J. J. Lee. (2017). *Pe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Disability & Employment.
- [26] S. Schlein & B. G. Guerney.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27] M. Jerusalem & R. Schwarzer.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pp. 195-213).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28]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 15(6), 1173-1182.
- [29]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man, S. west & V. Sheets.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es*, 7, 83-104.

- [30] E. S. Kwak. (2003). *The influences of leisure activitied and peer -relationship on adolescets' life satisfac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 [31] U. G. Jang, Y. S. Park & U. C. Kim. (2008).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adul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22-33.

권 오 형(Oh-Hyoung Kweon) [정회원]



- 1988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2012년 2월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산업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 E-Mail : aag78@naver.com

문 재 우(Moon, Jae Woo) [정회원]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우울, 자살, 건강
- E-Mail : moon1229@hansei.ac.kr